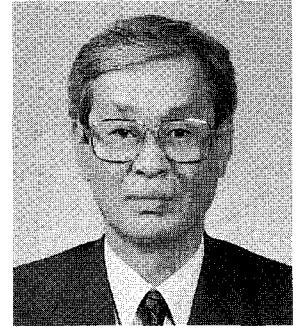


## 21세기 한국물류발전의 방향정립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KPA자문위원 윤 문 규

작금, 한국물류의 난제는 “고비용의 저효율 물류구조” 현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 국가의 도시계획과 물류계획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적인 설계 및 투자하는 것이 선진국의 교훈이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화물량 증가와 물류 수요에 측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SOC 부문은 산업의 투자우선순위에서 항시 밀려나 있었다.

전쟁시, 병참지원(Logistic)의 낙후는 패배를 자초하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도로, 철도, 항만, 항공, 공항, 화물터미널과 같은 물류 기초시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물류의 기본활동인 수송방식, 보관방식, 포장방식 등을 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물류 기술은 3년이 지나면 옛날 이야기다”라는 말처럼 그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물류관련단체 및 협회를 통해서 선도적인 물류성공기업의 사례와 정보를 상호 교환, 활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양자의 입장에서 각기 해야할 역할분담이 있고, 항시 공조체제를 유지하게 될 때, 효율적인 물류구조개선이 이룩될 것이다.

한국에서 물류발전이 성공할 것인가의 관건은 현재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표준화 작업의 정착이다. Unit load system을 주축으로 한 물류의 표준화가 이룩되면 물류공동화 사업을 용이하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는 경쟁, 물류는 공동”이라는 구호처럼, 21세기 한국의 물류위상은 바로 물류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전략적 무기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